

# 전력

## 비중확대

### 소규모 전력 시장 열린다

####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 29일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허용으로, 기존 전력거래소를 통한 대규모 발전사들을 중심으로 유지되던 전력거래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소규모(주로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거래시장에 참여해야 하나, 개정안은 발전사업자를 대신해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그림 1). 이에 소규모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며, 전력거래소 입장에서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소규모 전력 시장 투자가 촉진될 전망이다.

#### 더 나아가 에너지 프로슈머 허용도 기대

이번 개정안에는 ‘에너지 프로슈머’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과거(16년 6월) 정부가 제출했던 법안에는 에너지 프로슈머 내용이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함께 포함된 바 있다. 참고로 에너지 프로슈머란 자가발전한 전기를 소비자간에 사고파는 것을 뜻한다(그림 2). 현재 전력 소매판매는 한국전력(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에너지 프로슈머가 허용된다면 바로 옆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전을 통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탈원전/석탄) 성공을 위해서는 전력수요 조절과 신재생 확대가 필수적이기에, 소규모 전력시장 개방, 더 나아가 에너지 프로슈머도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3%로 낮아진 자가발전 비율을 고려하면(그림 7), 향후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전기요금제도 개편과 함께 실시간 전력시장 모델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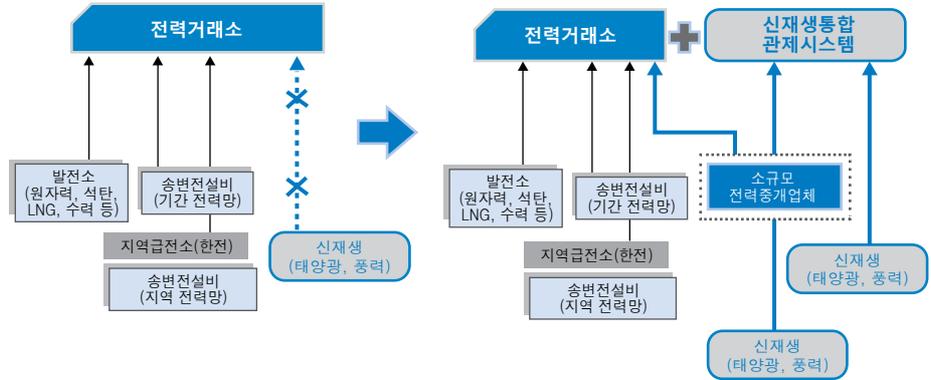
#### 전력시장 변화는 한전 및 신재생, ESS 업체에게 긍정적

한전의 경우, 이번 법안 통과에 따른 단기적 영향은 없다. 기존대로 신재생 공급의 무(RPS) 비율이 매년 1%p 높아짐에 따라 연 약 6천억원의 비용이 늘어날 것이며(그림 5, 6), 이는 이번 법안과 무관하다. 오히려 향후 에너지 프로슈머, 전기요금제도 개편 등을 통한 전력수요 감축으로 한전의 발전믹스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신재생 발전사업의 리스크(신재생공급인증서 REC 매출처 확보, 계통연결 어려움 등)가 축소될 것이라는 점에서, 신재생 업체들에게도 긍정적이다. ESS 업체들은 시너지가 창출될 전력중개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에도 에너지 프로슈머, 전기요금제도 개편 등 ESS에 우호적인 영업환경이 기대된다.

강승균

seungkyun.kang@truefriend.com

[그림 1] 향후 예상되는 전력거래시장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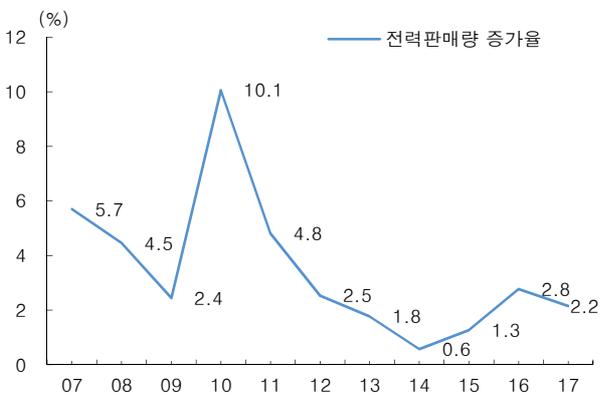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에너지 프로슈머 거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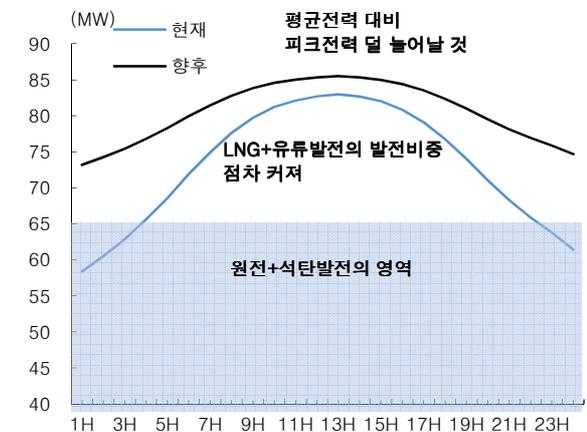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우리나라 전력수요 증가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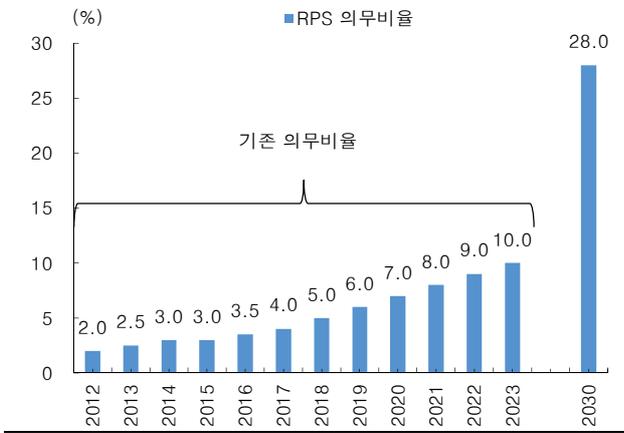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 한국투자증권

[그림 4] 피크전력 중심의 수요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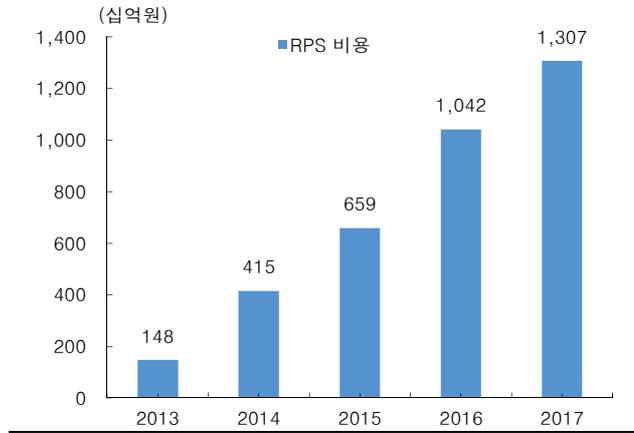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5] RPS 의무공급비율 2030년까지 28%로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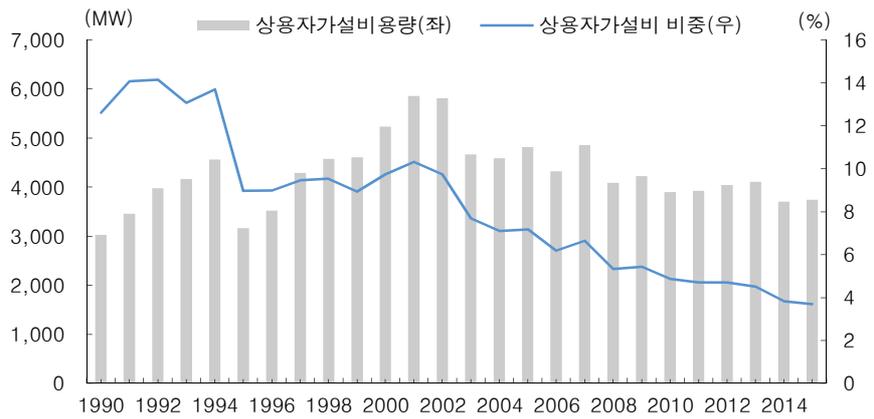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투자증권

[그림 6] 한전의 RPS 비용



자료: 한국전력, 한국투자증권

[그림 7] 상용자가설비 비중 축소 추세



자료: 전력거래소, 한국투자증권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18년 5월 30일 현재 상기 종목의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와 배우자는 상기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기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시장 지수 대비 주가등락 기준임

- 매 수 : 시장 지수 대비 15%p 이상의 주가 상승 예상
- 중립 : 시장 지수 대비 -15~15%p의 주가 등락 예상
- 비중축소 : 시장 지수 대비 15%p 이상의 주가 하락 예상
- 중립 및 비중축소 의견은 목표가 미제시

#### ■ 투자등급 비율 (2018.3.31 기준)

매수	중립	비중축소(매도)
80.3%	19.2%	0.5%

※ 최근 1년간 공표한 유니버스 종목 기준

#### ■ 업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해당 업종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시가총액 비중 대비 포트폴리오 구성 비중에 대한 의견임

- 비중확대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 비중보다 높게 가져갈 것을 권함
- 중립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 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권함
- 비중축소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 비중보다 낮게 가져갈 것을 권함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